

甲·金文에 반영된 殷商시기 女性の 사회적 지위

朴惠淑*

< 목 차 >

1. 序言
2. '女'로 구성된 漢字 字形 分析
 - 2.1 '女' 계열 漢字 字形 分析
 - 2.2 義符 '女'로 구성된 漢字 分析
3. 甲·金文에 반영된 殷商시기 女性
 - 3.1 婦好
 - 3.2 后母
 - 3.3 謠婦
4. 結語

1. 序言

中國文化에 대한 연구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女性文化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여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애정방면에 치우쳐서 李清照, 卓文君 등 개별 여성에 대한 연구이거나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한 여성을 상징하는 則天皇后와 慈禧太后的 연구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여성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여성에 대한 연구는 封建社會 시기에 여성이 받았던 인권 유린과 억압에 대한 내용과 민주 사회로 진입하던 과도시기에 진행되었던 반항과 투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성균관대학교 중문과 강사

현재까지 중국에서 여성은 母系社會에서 父系社會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당시의 社會的 地位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중국의 商代와 周代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출토문헌은 적고 역사적 기록이 너무 단편적이어서 이 시기의 여성 생활과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甲骨文의 발견으로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商代 卜辭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관련 문헌 자료들과 비교하여 殷商시기 女性的 生活과 地位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殷商시기는 甲骨文이 주된 서사 자료이지만, 당시에 주조된 것으로 보이는 青銅器도 적지 않게 출토되어 있어서 갑골문과 함께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시기 청동기상의 명문은 西周 시기의 銘文처럼 3,4백자에 달하는 장편의 명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동기의 규모와 명문을 통해서 殷商시기 여성 생활과 지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은상시기의 주된 서사 자료인 甲骨文과 金文을 중심으로 하여 殷商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甲骨文字典》과 《金文編》에 수록되어 있는 「女」자 관련 글자와 「女」자를 부수로 삼고 있는 글자의 字形을 분석하고, 金文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의 여성 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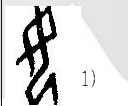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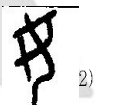
2. '女'로 구성된 漢字 字形 分析

고대인들은 사람의 인체 형상으로 많은 글자를 만들었다. 정면으로 서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大(大)자, 측면으로 서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人(人)자, 누워있는 사람의 형상인 尸(尸)자, 무릎 꿇고 있는 口(口)자, 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長(長)자,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兒(兒)자 등이 있다. 이러한 글자들

甲·金文에 반영된 殷商시기 女性의 사회적 지위 81
 은 해당글자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형상을 보이는 𡥉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甲骨文과 金文에서 거의 같은 字形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字形이 여성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인 것으로 보아 고대 시기 여성은 주로 낮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女' 계열 漢字 字形 分析

(1) 女

甲骨文	金文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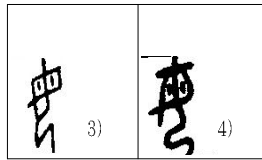
'女'자의 甲骨文 자형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
 을 가지런히 잡고 있는 인간을 본뜬 象形字이다. 무릎
 을 꿇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문자가 여자를 상징한다
 는 것은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단 낮은 지위를
 부여 받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金文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金文 자형에서는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가 점
 차 서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母

甲骨文	金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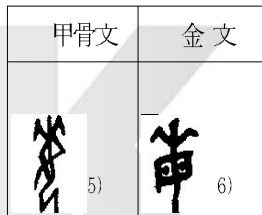
甲·金文에서 母 자는 여자와 같은 형태이나 가슴에
 있는 두 점이 더 있다. 이는 유두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

1) 《殷虛書契續編》 1.41
 2) 令鼎
 3) 《殷虛書契前編》 1.28
 4) 王作母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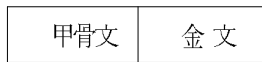
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란 의미이다. 특히 어머니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란 본래의 의미에서 시작해서 점차 손 위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또한 母자는 자식을 낳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母자는 사물의 근원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였다. 女자에 두 점이 추가되어 母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여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띠고 있다.

(3) 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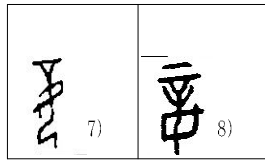
갑골문의 每자는 손을 가지런히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여성의 머리에 장신구를 꽂고 있는 형태이다. 金文 자형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남자의 머리에 장신구가 쓰면 美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 每자의 본래의 의미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每자와 美자는 자형을 구성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나타내는 의미도 비슷하다. 단지 每자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美자는 남성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每자는 후에 虛辭로 假借되어 배변, '항상'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본래의 의미는 상실하게 되었다.

(4) 妾



古代 시기는 전쟁 포로 또는 범죄자를 노예로 충당했었다. 古文字의 妾자는 女와 辛으로 구성되어 있다.

5) 《殷契摭佚續編》·1003
 6) 晉鼎
 7) 《殷虛文字甲編》4·25
 8) 伊敦



辛은 일종의 刑具로서 妾은 刑罰을 받은 여자 노예를 가리킨다. 즉 妾의 本義는 여자노예를 나타낸다.

(5) 妻



妻자의 甲骨文 字形은 긴 머리를 한 여성을 손으로 잡는 형상으로 이루어진 會意字이다. 즉 부녀자를 약탈해서 아내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당시의 婚姻 풍습을 알 수 있게 하는 글자이다.

(6) 毋



毋는 甲骨文과 金文에서 毋와 한 글자로 쓰인다. 이후 石文에서는 두 점이 한 획으로 바뀐 𠄎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시기부터 두 글자를 구별하여 사용되었으며, 毋는 禁止의 의미를 나타낸다.

2.2 義符 '女'로 구성된 漢字 분석

고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지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義符로 구


9) 《殷虛書契前編》 4· 25

10) 陽鼎

11) 兮田盤

성된 漢字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媼」와 「媿」, 이 두 글자는 각각 “시끄럽다, 음란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媼」자는 《說文》에서 “악자지결 시끄럽게 논쟁하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媿」자의 경우는 “음란하다”는 의미에서 사악한 것을 의미하는 어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글자를 보면 여성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義符 「女」로 구성된 글자 중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 있는 글자를 분석해 보면, 「女」를 義符로 삼은 글자 모두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姓

甲骨文	金文
	 12)

姓은 女와 生으로 구성된 會意兼形聲字로 “여자가 낳았다”는 뜻이다. 원시시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는 군혼제(群婚制, Group marriage)가 이루어졌던 때에는 어머니만 알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혈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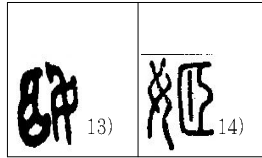
모계로 따질 수밖에 없었기도 하다. 이 단계의 사회를 모계사회라 한다. 그러나 이후 점점 남자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자녀의 혈통은 모계를 따르지 않고 부계를 따르게 되었다. 이때 부계를 따른 성을 氏라 한다. 지금은 이를 합하여 성씨라 쓰고 있지만, 본래는 이러한 역사를 담고 있는 글자이다. 姓의 本義는 혈연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母系氏族社會의 흔적이 남아 있는 글자이다.

(2) 姬

金文	小篆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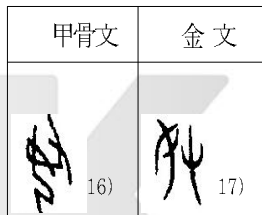
姬는 形符인 女와 聲符인 己로 구성된 形聲字이다. 甲骨文 字形 중에는 보이지 않으나, 女자 대신 每를 形

12) 古鈔
13) 衛姬壺
14) 《說文》女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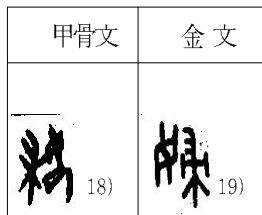
符로 삼은 글자로 보인다. 姬의 본래 의미는 皇帝가 희수에 거하였기 때문에 성으로 삼았다¹⁵⁾는 것에서 고대시기의 姓氏를 가리킨다. 고대시기의 성은 대부분이 「女」가 부수 편방으로 쓰였다. 形符 女로 구성된 글자 중 姓氏를 나타내는 글자는 媯, 妘 등이 있다.

(3) 奴



「奴」자는 甲骨文과 金文에서 손으로 여성을 잡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손으로 사람을 조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고대시기의 죄인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奴」자는 본래 여자 노예를 가리키는 의미였으나 남자 노예를 통칭하는데 쓰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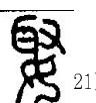
(4) 婦



婦자는 女와 帚로 구성된 會意字로 여자가 빗자루를 잡고 청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는 제사를 준비하는 여성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그러나 이 글자는 단순히 가사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을 나타내는 글자는 아니다. 상나라 때는 婦가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통칭이 아니라 왕비 등을 가리키는 직함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甲·金文中에서 婦자는 기혼의 여성을 의미하는 글자로 쓰였으나 지금의 기혼여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貴族階級 여성을 의미하는 글자이다.

15) 《說文繫傳》
 16) 《鐵雲藏龜》 271
 17) 審磬
 18) 《戰後京津新獲甲骨集》 2027
 19) 多父盤

(5) 娶

甲骨文	金文
 20)	 21)

결혼에 해당하는 어휘로 “아내를 취하다”는 뜻의 “장가들다”는 의미의 「娶」자가 있다. 「娶」자의 甲骨文 자형은 귀를 잡고 있는 형태로 “취하다”는 의미가 本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引伸되어 “아내를 취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자, “아내를 취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편방 「女」를 부가하여 「娶」자가 分化되었다. 갑골문 자형은 여성의 귀를 손으로 잡고 있는 형태로, 전쟁에서 이기면 여자들을 사로잡아 노예나 첩으로 삼던 습속이 반영된 글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납치를 통해서 혼인을 성사시키는 奪取婚²²⁾의 습속에서 탄생된 글자라고 할 수 있다.

3. 甲·金文에 반영된 殷商시기 女性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은 전반 천여 년의 기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盤庚이 殷으로 遷都한 이후인 殷商 말기에 해당하는 金文과 甲骨文이 대량으로 출토되면서 당시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한 실물자료를 볼 수 있게 되었다. 殷商 말기는 시기적으로 고대와 가깝기 때문에 金文과 甲骨文을 통해서 당시의 여성문화와 그 보다 좀 이른 시기의 여성문화를 엿볼 수 있다.

20) 《殷虛書契菁華》 7·1

21) 《說文》女部

22) 중국 서남쪽 운남성에 거주하는 리수족의 경우, 지금도 이러한 탈취혼의 습속이 남아 있다. 그들은 부모의 동의하에 신랑될 사람이 결혼할 상대 처녀를 납치해 깊은 산 속에 숨겨놓는다. 만약 여자 집에서 딸을 사흘 내에 찾지 못하면 이 결혼은 성사되지만, 찾아낼 경우에는 납된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관정되어 결혼을 할 수 없음을 물론 손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이 풍속은 분명 탈취혼의 잔영이라고 볼 수 있다(하영삼1997:125).

殷商시기의 金文과 甲骨文을 통해서 殷商시기는 王族이외에도 많은 씨족이 각각의 나라를 세워서 병존했으며, 당시의 사회 조직은 母系사회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상류층 여성은 여전히 母系氏族社會의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여성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전쟁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했으며, 제사를 주재하고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활동은 여성이 국가의 정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농업을 주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방면에 있어서도 생산관리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칭에 있어서도 남성을 나타내는 호칭을 “子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칭호도 “女某”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남존여비의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후대에 여성의 칭호가 완전히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러나 이는 일부 상류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여성의 지위는 이미 떨어져서 夏王朝가 시작되면서 王權은 男性에게만 있으며 女性은 근본적으로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商代의 王位繼承은 “兄終弟及,” “父死子繼”의 남성위주의 계승이었으며, 男婚女嫁라는 남성 중심의 결혼과 一夫多妻制의 혼인제도 등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殷商시기는 노예제도가 실시되고 있어서 階級상의 차별과 性別의 차별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였다. 남성은 재산의 소유, 제사, 사회 성원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殷周 시기 여성은 제사의 희생물이 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金文과 甲骨文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하층 여성이나 전쟁 포로로 끌려온 귀족 여성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부 귀족여성은 비록 경제권과 독립적인 칭호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그들의 남편이나 아들에게 종속된 위치에 있었다. 이는 상대 말기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갑골문 중에 婦 또는 多婦가 기록된 契辭의 내용을 보면 諸婦로 통칭되는 婦 또는 多婦는 商代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대를 통솔하고 군사를 이끌고 정벌을 나가는 것은 물론 제사 주관, 농업 주관, 변방을 지키는 등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殷商시기 여성 중 갑골문과 靑銅器

銘文에 자주 등장하는 婦好, 后母의 활약을 살펴보고 諸婦로 통칭되는 婦²³⁾ 또는 多婦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3.1 婦好

중국에서 문자로 기록된 여걸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현존하는 자료 중에 가장 이른 시기 문자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은 婦好이다. 1899년 안양 소둔에서 甲骨文이 발견된 이래로 상당량의 甲骨文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갑골에는 婦好, 婦妊, 婦鼠, 婦妃 등 부녀자의 이름이 새겨진 갑골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婦好와 관련된 刻辭는 약 300여조에 이른다. 婦好와 관련된 자료가 많고 사적이 두드러져서 甲骨文 刻辭 나타난 여성 중에 최고라 할 수 있다. 특히 1976년 중국과학원고고연구소에 의해 발굴된 殷墟5號墓-婦好墓는 출토된 풍부한 수장품 만큼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 甲骨文 중 300여조에 달하는 각사와 5호묘 유적지의 청동기에 주조된 銘文을 상호 인종하면 婦好라는 여성의 활약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²⁴⁾.

盤庚이 수도를 殷으로 遷都하고 나서 武丁시기에 이르러서는 내외적으로 쇠락의 시기였다. 婦好는 武丁의 아내였다. 무정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3명은 정실 아내이다. 婦好는 이 세 명 중에서도 무정의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合》709正: “婦好禍風有疾。”

《合》773甲: “婦好弗疾齒。”

위의 甲骨文刻辭는 “부호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이 있느냐?”, “부호의 치아가 병이 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부호의 건강을 위해서 武丁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23) 실제로 갑골문에서는 婦 또는 多婦로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婦로 쓰고 있다. 그러나 갑골문에서의 婦와 현재의 婦자는 여성을 가리키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여성에는 차이가 있다.

24) 曹兆蘭(2004:4)

는 것을 알 수 있다.

《合》 271正: “己卯卜, 貞貞: 御婦好于父乙, 羊又豕, 卅宰。”

이는 “己卯일에 占을 쳐서 貞官 貞이 묻기를: 보호를 위해서 父乙께 御祭를 거행하는데 양과 돼지를 특별히 키운 양 열 마리를 희생으로 삼을까요?”라는 뜻으로 武丁이 婦好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신에게 기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정의 충애를 받았던 부호는 제사를 주관하거나 전쟁을 지휘하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갑골문에 기록되어 있다. 은상시기에는 세상 모든 일이 신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믿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주 조상과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복을 기원했다. 상왕조는 모든 일을 점복을 통해서 결정했으며 제사와 점복은 당시의 중요한 정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정사를 점복을 통해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婦好는 자주 商王의 命을 받들어 제사를 주관했다는 기록이 있다.

《合》 94正: “乙卯卜, 賓貞 呼婦好侑 艮于妣癸。”

《合》 2607: “貞: 婦好侑于妣妣。”

부호에 관한 기록은 婦好墓에서 출토된 109건의 靑銅器에는 “婦好”라는 銘文이 주조되어 있다. 이 銅器는 대부분 주로 제사에 제기로 사용되었다. 婦好墓에서 출토된 銅器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가 많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祭器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볼 때, 婦好가 주재하던 제사의 규모가 크고 제사도 자주 주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호가 정치 전반에 걸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이다.

婦好는 제사를 주관하는 일 외에도 전쟁에서도 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商代 變방에는 北方의 土方, 西北지역의 羌方, 西南지역의 巴方 등

이 商王朝와 마주하고 있었다. 상왕조는 변방을 보호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자주 전쟁을 벌였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병사를 필요로 했다. 당시의 전투 방식은 병사의 수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부호는 이와 같이 병사를 징집하는 역할을 하여 상왕조를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合》7283: “甲申卜, 貞: 呼婦好先共人于龐。”

위의 각사는 “甲申날에 占을 쳐서 貞官 貞이 물기를: 婦好가 먼저 龐地에 가서 병사를 징집할까요?”라는 의미인데, 이와 같은 내용의 卜辭가 10조 정도 더 있다. 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나를 나타내며 동시에 婦好가 병사를 징집한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婦好는 후방에서 병사를 징집하는 일 외에도 군사를 직접 지휘하여 전쟁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合》6412: “辛巳卜, 貞: 今王共人, 呼婦好伐土方。”

《合》6480: “貞: 王命婦好比侯告伐夷。”

婦好는 변방의 여러 방국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婦好가 여러 전투에서 군사를 지휘했다는 것은 그의 군대 통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나타낸다.



婦好墓에서 대량의 정교한 수장품 중에는 銅鉞, 銅刀, 銅戈, 銅鏃 등의 병기도 보이는데, 이는 墓主人 婦好가 생전에 전쟁 능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婦好”하는 銘文이 새겨진 대형 銅鉞은 각각 무게가 8.5kg, 9kg에 이르며, 각각 龍무늬와 猛虎가 사람의 머리를 삼키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거대하고 위엄을 나타내는 銅鉞은 군사통솔권의 상징으로 부호가 이러한 동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상당히 높은 군사통솔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부호는 상왕인 무정의 아내이면서 정치와 군사에 있어서 상당한 지

위를 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后母

1939년 3월에 河南省 安陽市 武官村에서 대형 鼎이 출토되었다. 기물의 형태가 매우 우장하고 문양도 장중하고 정교하게 구조되어 있다. 이 대형 鼎의 내벽에는 “后母戊”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后母는 妣戊를 가리키며, 卜辭에 자주 등장하는 婦妣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⁵⁾. 祭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武丁의 아내는 妣辛, 妣戊, 妣癸, 이 세 사람뿐이었다. 그 중에서 妣戊가 바로 婦妣를 가리킨다. “婦妣”은 생전에 불리던 칭호였고, 자식들은 “后母戊”라 했으며, 後孫들은 “妣戊”라 칭하였다. 婦妣와 관련이 있는 卜辭는 2백여 조에 이른다.

복사에 의하면 婦妣는 군대를 징집해서 商과 적대관계에 있는 방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合》6347: “呼婦妣以 夬 先于 棗。”

《合》6584: “惟婦妣伐龍 𠄎。”

복사의 내용은 “婦妣에게 夬 지역의 사람을 징집하여 군대를 이끌고 棗지로 먼저 출발하라고 명령하다”, “婦妣가 龍方을 정벌하여 龍方이 재해를 입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龍은 商나라 서북지역의 龍方을 가리키며, 商왕조와 적대관계에 있던 方國이다.

婦妣는 商왕조의 노예주귀족계급 여성으로 당시의 정치와 군사에 있어서 큰 활약을 한 인물로 재력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婦好와 필적된다. 그러나 婦妣는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다.

25) 曹兆蘭(2004:15) 제인용 : 唐蘭認為, “后戊就是妣戊, 我很懷疑她就是卜辭上見的婦妣”

- 《合》9530: “辛丑卜, 貞: 婦妣呼黍丘商。”
 《合》9533: “呼婦妣往黍。”
 《合》9968正: “甲寅卜, 古貞: 婦妣受黍年。”
 《合》9970: “貞: 婦妣黍受年。”

《合》9530은 “辛丑年에 貞官 貞가 짐을 쳐서 묻기를: 婦妣이 丘商에 기장을 심으라고 명령했습니까”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丘商은 지명으로 商王이 직접 관할 하던 지역으로 지금의 河南省 商丘 일대를 가리킨다. 이는 婦妣이 상왕을 도와 農業生産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呼婦妣往黍”은 부정에게 앞으로 기장을 심으라고 명령했다는 의미로 이는 상왕의 명을 받들어 농업생산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婦妣受黍年”도 부정이 책임지고 있는 기장이 풍년이 들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왕후이면서 농업을 책임지고 있던 왕후는 후대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도 婦妣은 甲骨를 검수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合》2530反: “婦妣(妣)示百。貞。”
 《合》10935反: “婦妣(妣)示四十。”

이는 婦妣이 百대의 甲骨를 검수하였으며, 貞이라는 貞官이 서명했다는 의미이다. 즉 占卜에 사용되는 갑골을 검수했다는 것은 점복이라는 중요한 일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26) 婦妣 사후에 그의 자손들이 “后母戊”라 칭하였다. 이미 왕위를 계승한 아들이 그녀를 위해 상례를 거행했으며, 大鼎을 만든 것이다. 이 鼎에는 “后母戊”라는 세 자의 銘文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 “后”는 왕후를 가리키며, 后母戊의 생전의 호칭은 婦妣으로 商王인 武丁의 后이다.

즉 祖庚 또는 祖甲의 생모를 가리키는 것이다. “母”는 어머니를 가리킨다. “戊”

”는 十干중의 하나로 이미 故人이 된 祖父 祖母 父親 母親 등 친속의 칭호에 쓰이며 돌아가신 先祖가 祭廟에서 사용되는 廟號이다. “后母戊”는 왕후이며 어머니이며, 廟號를 戊로 쓰시는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大鼎을 주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大鼎은 方鼎으로 발굴 당시에 한 쪽 귀만이 남아있었으며, 나머지 귀는 잘린 흔적이 있었다. 발굴지점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잘려진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方鼎은 圓鼎보다 주조하기 더 어렵다. 后母戊와 같은 鼎을 제작한 사람은 상당히 높은 기술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制模, 制范, 雕花, 修飾 등의 공정에 많은 노예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거대한 정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므로 이 방정은 당시 후모부의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甲骨卜辭의 내용과 青銅 器物을 통해서 后母戊는 婦好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 시기까지는 모계사회의 유풍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諸婦

殷代 金文과 甲骨文 중에서 “婦”로 호칭되는 여성들이 있다. 또한 “婦”자는 갑골문에서는 “多婦”²⁷⁾ 또는 “諸婦”²⁸⁾ 라도 통칭하고 있다²⁹⁾.

《合》2825: “不于多婦禍。”

《合》22258: “多婦無疾。”

殷代 金文 중에 보이는 「婦」의 호칭형식을 살펴보면, 첫째로 「婦」자가 단

27) 曹兆蘭 (2004:25)

28) 趙誠(11985:99)

29) 島邦男의 통계에 의하면 갑골문 중의 婦名은 모두 80여 조가 되며, 《甲骨學一百年》에 의하면 갑골문 중에서 “婦某”의 경우는 95조, “某婦”의 경우는 13조로 나타나고 있다(曹兆蘭 2004:25)

독으로 쓰인 경우이다. 이는 기혼의 성인 여성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婦」 + 私名의 형식으로 쓰인 경우이다.

- “婦好”(《婦好墓》、40)
- “婦好正”(9509)
- “婦嬭”(6143)
- “婦佁作彝”(7287)

「婦」자 뒤에 나오는 한 자 또는 두 자의 글자는 私名을 가리키며, 그 중 대부분이 「女」가 부수인 글자이다. 이는 당시 여성은 이름을 쓸 때에 성별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婦」자 앞뒤에 氏族徽號를 표시하는 경우이다.

- “山婦”(6144)
- “守婦”(6145)
- “集婦父庚”(5083)
- “婦亞芴”(6346)
- “婦鳥”(6870)

「婦」자 앞의 「山」, 「守」와 「婦」자 뒤에 나오는 「亞芴」, 「鳥」 등은 모두 氏族徽號이다. 은대는 씨족사회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씨족에 예속되어 있다. 「婦」는 기혼의 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氏族徽號는 남편의 씨족휘호를 가리킨다. 네 번째는 「婦」자 앞에 나오는 글자가 남편의 관직이나 이름 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 “子□婦吉”(三代2·32·6)
- “伯婦”(3625)

여기에서 「子□」는 남편의 이름을 가리키며, 「伯」은 남편의 작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경우는 「婦」자 앞이나 뒤에 廟號를 나타내

는 경우이다.

“甲婦”(8136)

“賓婦丁父辛”(4972)

“女母作婦己彝”(10562)

여기에서 「甲」, 「丁」, 「己」는 모두 廟號를 가리킨다. 위의 다섯 가지 형식 외에도 여러 형식이 혼합되어 쓰인 경우도 많다. 「婦」자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남편에 대한 표시가 앞에 오고 「婦」자 뒤에는 사명이 오는 것이 고정된 형식이며, 남편의 氏族徽號나 廟號의 경우는 앞뒤로 다 올 수 있어 가변적이다.

殷代 銘文의 자수는 적어서 「婦」에 반영된 사적도 많은 편은 아니다. 명문에 나타난 「婦」는 기물의 作器煮, 受器者, 享祭者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당시 청동기는 어떤 공적으로 인해 상을 받은 것은 기념하거나, 후손이 享祭者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작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나 애석하게도 銘文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에 기물을 제작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婦」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殷代의 명문은 대부분이 몇 글자에 불과해서 「婦」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갑골문의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고자 한다. 殷代 甲骨文에 나오는 「婦」자는 《甲骨學一百年》의 통계에 의하면 “婦某”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95개, “某婦”의 형식은 13개였다. 그러나 多婦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婦」가 생략되고 바로 호칭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수는 예측하게 어렵다.

多婦의 신분은 商王이나 그 형제의 아내나 첩을 가리킨다. 앞에서 언급된 婦好와 婦姁(后母)의 경우가 그 예이다. 또한 제후나 대신의 妻妾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合》32896: “王其命望乘婦, 其告于祖乙一牛。”

《合》9478: “壬申卜貞: 禦師般婦。”

여기에서 “望乘”과 “師般”은 商王의 유명한 武官이다. 이외에도 「婦」는 商王의 며느리 또는 왕의 결혼한 자매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合》 21796: “余卜貞: 雷婦有子。”

《合》 14115: “王貞: 婦鼠媿, 余子。”

「雷」의 아들로 며느리가 아이가 있는가를 직접 점을 쳐서 묻고 있으며, 「婦鼠」는 상왕의 결혼한 자매를 말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多婦는 상당한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집안의 안주인 역할 외에도 정치참여, 경제와 군사 활동도 활발히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세 당당하고 힘이 넘치는 여성상은 후대 문헌에 반영된 원한과 슬픔 그리고 연약한 인물로 그려진 여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4. 結語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 중에서 여성을 나타내는 「女」자의 甲骨文과 金文 자형은 두 손을 가지런히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형상이다. 이는 문자가 형성된 시기부터 여성은 순종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女」자에 다른 요소를 더 부가하여 만든 漢字에서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女」를 부수편방으로 쓰고 있는 글자는 문자 형성시기부터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甲·金文의 자형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볼 때, 당시의 여성은 상당히 낮은 지위에 있었다고 감히 결론짓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을 나타내는 모든 의미의 한자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문자 형성시기부터 나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女」를 부수 편방으로 삼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殷商시기는 여성의 지위가 단순히 가정을 돌보거

나 노예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제사를 집행하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결혼한 여성을 뜻하는 「婦」자의 경우도 甲·金文 자형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성이라고 해서 단순히 청소를 하는 가정주부를 의미한다고 풀이했었지만, 갑골문 내용을 통해서 「婦」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정리한다는 의미이며, 당시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성한 제단을 청소한다는 것은 그 제사를 주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婦」의 지위가 상당한 위치임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여기에서 의미가 변화 발전하여 모든 결혼한 여성을 나타내는 글자로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은상시기 여성은 단순히 남자에게 순종하는 여성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잡고 있는 여성은 貴族階級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후대의 귀족계급 여성과는 구분되는 확실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도 남자 즉 당시의 왕이나 남편이 부여한 권력이므로 이미 남존 여비의 사회적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婚姻制度를 통해서도 殷商시기는 확실히 男尊女卑 사회라 규정지을 수 있으나 그래도 母系社會의 遺風이 남아있어서 남성에게 받은 한정된 권력이지만 後代의 文獻상에 나오는 여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힘과 권력이 있는 여성이었다.

결론적으로 殷商시기의 여성의 지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지위에서 순종으로 일관하는 여성은 아니며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殷商시기 만큼 政治, 經濟, 軍事적인 면에서 활약을 한 여성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容 庚 1998 《金文編》，中華書局，第6次印刷
 陳初生 2004 《金文常用字典》，陝西人民出版社
 姚孝遂 1988 《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中華書局
 徐中舒 1998 《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第5次印刷

- 梁東淑 2005 《甲骨文解讀》，書藝文人畫
- 王宇信 楊升男 1999 《甲骨學一百年》，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張亞初 2001 《殷周金文集成引得》，中華書局
- 洪家義 1988 《金文選注釋》，江蘇教育出版社
- 曹兆蘭 2004 《金文與殷周女性文化》，北京大學出版社
- 高樹藩 1971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正中書局
- 하영삼 1997 《문화로 읽는 한자》，동방미디어
- 阿辻哲次, 1993 《漢字の字源》，講談社
- 張政烺 1983 〈婦好略說〉，考古, 1983. 6期
- 張政烺 1983 〈婦好略說補記〉，考古, 1983. 8期
- 趙 誠 1985 〈諸婦探索〉，古文字研究12 集 中華書局
- 饒宗頤 1985 〈婦好墓銅器玉器所見氏姓方國小考〉，古文字研究 12集, 中華書局

〈中文提要〉

在殷商晚期的金文、甲骨文中, 可以看到, 殷商王朝內外, 有許許多多的氏族林立, 有大大小小的邦國并存, 當時的社會組織尚有母系氏族社會的遺風。其上层女性仍有母系氏族社會的余威。她們可以馳騁疆場守守邊疆, 說明當時社會分工尚未將她們禁錮於室內, 在最易視為女性弱項的軍事戰爭領域中也能發揮她們的最多潛力和才幹。她們可以主持祭祀參與祭禮, 而這些活動往往是參與國家政政的機會, 說明當時“牝雞司晨”的斥責尚未興起。她們可以主管農業並在王室與封地之間來來往往, 說明她們擁有一定的生產管理權和生產資料支配權, 在經濟方面尚有一定實力和資本。總之, 殷商時代是婦女地位相對崇高的時代, 至少, 較之後代女性, 具有更高的社會地位。

关键词：金文, 甲骨文, 女性, 殷商时期, 社会的地位